

2.

2018학년도

인문계열 2회차 해설

인문계열 2회차 공통문항

출제 의도

출제 의도는 한국 사회 '성불평등'을 주제로 제시문 <가>와 <그림>에 나타난 주요 부문의 지표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재취업 현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있다. <가>를 <나>와 <그림>을 근거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이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출제 의도가 있다.

제시문 <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재취업이 어렵고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에 놓이게 되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과 성역할에 따른 모성에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는 가정과 육아에 우선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다>는 과거보다 편리해진 가정생활과 여성 관련 일자리의 증가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성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7년, 159~161쪽에서 발췌)

제시문 <가>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의 일을 양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고, 아이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재취업을 할 때 직종과 고용형태, 임금이 하향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대학교육을 받았음에도 여성들이 가정과 양립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사이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저임금 단순 서비스직이나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기혼여성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 :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 『모성의 발명』(이재원 옮김, 알마, 2014년, 59~78쪽에서 발췌 후 운문)

제시문 <나>는 산업화로 여성과 남성의 노동 분업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남성은 바깥일에, 여성은 가정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정반대되는 성적 특성을 내면화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즉 남성에게는 활동성의 덕목이 여성에게는 온순함과 복종, 순종이 강요됨으로써 새로운 성역할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근대화 과정에서 획득된 자유와 평등은 남성에게만 주어졌고, 여성에게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모성에 이데올로기가 주입되어 지금도 잔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다> : 헬렌 피셔, 『제1의 성』(정명진 옮김, 생각의 나무, 2005년, 57~59쪽에서 발췌 후 운문)

제시문 <다>는 여성이 이제까지 맡아 왔던 가사노동의 부담이 각종 편리한 가전제품 등으로 보다 수월해 되면서 사회진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는 여성들이 집안일에 매이지 않게 생활 여건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고 한다. 더구나 아이도 적게 낳고 있고 여성 친화적인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여성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져서 노동시장 진출이 유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파트타임의 형태로 근무시간을 융통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계속해서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림> : 손해용, “82년생 김지영씨의 유리 천장은 여전히 높습니다”, <중앙일보> 2017.10.19. (재구성)

<그림>은 세계1위 지역과 한국의 주요 부문별 성평등을 비교한 지표다. 법적 보호와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지만, 낮은 여성임원비율과 여성들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권한이 낮은 직군에 배치되어 임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유리천장이 존재를 암시하고,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을 여성이 일차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논제의 구성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의 문제 상황을 <나>와 아래 <그림>을 통해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1000±100자)

제시문 <가>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기혼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제시문 <나>는 여성에게 작용하고 있는 성역할과 모성 이데올로기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다>는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생활여건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림>은 세계1위 지역과 한국사회의 주요 부문별 성평등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각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있는 ‘사회계층과 성불평등’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고교 학습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는 두 단계로 논제가 구성되었다.

1단계는 <가>의 문제 상황을 <나>와 <그림>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

제시문 <가>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을 <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표>에 나타난 각 부문별 불평등 지표들의 차이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에서 아이 양육과 관련한 부담으로 여성들이 재취업시 선택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직종과 고용형태, 임금 등이 열악한 상황이, <나>에서 언급한 남녀간의 성별 분업화와 모성에 이데올로기로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가사노동과 아이 양육의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지어 해석해야 한다. 또한 <그림>에서 나타난 무급 가사노동시간에 여성비율이 높다는 점과 임원비율이 낮은 사실과 <가>에서 언급한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가정의 일을 부담지우고 있음을 해석해야 한다.

2단계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다>에서 언급한 내용을 비판해야 한다.

<다>는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어 사회 진출이 용이해졌고,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와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재취업이 사실상 쉽지 않고 또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이 낮다는 점에서 <다>의 논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즉 파트타임의 확대가 여성노동력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과 비정규직 여성문제로 나타나고 있기에, <다>에서 여성들의 사회 노동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고착된 성역할과 모성 이데올로기가 작동함으로써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확보하고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즉 한국사회의 경우 법적, 교육적 차원의 형식적 성평등은 달성되었지만 여성에게 기대하는 엄마로서의 성역할과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실질적인 성평등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림>과의 연관성을 찾아 이를 해석하며 통합적,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 성불평등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 답안 구성 요소

1.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

① <가>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경력이 단절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이 비정규직 등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열악한 고용현실을 지적해야 한다.

2. 제시문 <나>의 주장과 <그림>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② <나>의 핵심 주장을 잘 파악해야 한다. <나>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남녀사이에 노동 분업이 형성되어 남성은 사회적 영역에, 여성은 가정 일을 전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발견해야 한다. 이는 활동영역에서만 아니라 새로운 성역할에 따라 본성으로 내면화되어 여성에게는 모성에 이데올로기가 강조됨으로써 아이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③ <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부문간 지표 차이에서 드러난 맥락을 추론해야 한다. 세계1위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사회의 경우 여성과 남성은 법적 측면과 교육수준, 생산 가능인구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임원비율과 무급가사노동시간 비율에서 성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형식적인 평등은 이루어졌지만,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해야 한다.

3. 제시문 <나>와 <그림>을 통해 제시문 <가>의 상황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

④ <나>의 성분업, 모성이데올로기와 <그림>의 무급가사노동시간과 임원비율 등의 지표와 <가>에서 나타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연관지어 해석해야 한다. 즉 여성들이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의 문제와 여성이 질이 낮은 일 자리를 맡게 된 근본 원인이 사실상 고정화된 성역할과 가부장적 문화에 기반한다는 점을 발견해야 한다. 여성에게 가정에서의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해석해 내야 한다.

⑤ <가>, <나>, <다>를 잘 연결시켜 논지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가정이 우선이고 모성이 중요하다고 강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을 나온 여성이라도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될 경우 재취업이 어렵고,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단순 서비스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불평등의 원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과 조직에서 임원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은 가장인 남성이 우선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국사회 성불평등의 특징을 해석해야 한다.

4. 제시문 <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⑥ <다>의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는 과거에 비해 편리해진 가전제품과 생활여건으로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보다 적은 자녀를 갖게 됨으로써 아이 양육의 부담이 감소되고, 가정 일에서 여성들이 해방되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 친화적인 다양한 일자리들이 등장하고 있고, 파트타임 등 유연한 근무형태가 가능해졌으며, 여성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5. 제시문<가>의 상황을 <나>와 <그림>을 통해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의 한계를 잘 비판하고 있는가?

⑦ <다>의 한계를 전반부 논의를 바탕으로 연결하고 비판해야 한다. 여성들이 남성과 비슷한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질이 낮다는 것과,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여성이 자유롭게 못한 상황을, <다>에서 언급한 여성해방은 이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야 한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역할 분리와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전문성이 없는 단순 서비스직에 종사하거나 임원으로서의 성장은 쉽지 않다는 점을 비판해야 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사부담 시간도 줄어들지 않아 사회적 노동력이 확대되는 흐름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 Key Word :

제시문 가) 여성노동, 재취업, 육아, 파트타임, 비정규직, 최저임금, 경력단절여성

제시문 나) 성분업, 여성적 본성, 성역할, 모성에 이데올로기, 젠더

제시문 다) 여성해방, 유연한 근무시간, 편리해진 가전제품, 교육수준, 사회적 노동력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과 어울림이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결과임
삶의 만족도 - 성공 지향적 교육이 아닌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교육 환경과 관련됨

예시 답안

<가>는 한국사회에서 결혼한 여성들이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거의 없고, 어렵게 재취업을 해도 직종과 고용, 임금수준이 낮다.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또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가정에서의 역할에 일차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했어도 단순 서비스직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등 여성의 사회적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나>는 산업화로 성별분업이 고착화되면서 여성에게 모성애 이데올로기를 통해 아이 돌보기와 가사노동을 내재화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은 한국사회가 법적 보호와 교육 수준에서는 대체로 평등하나, '임원 비율'과 '무급 가사노동시간 비율'을 세계 1위 지역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불평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임금비율'과 '전문직 비율'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결혼 후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전문직 분야에서 임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지급도 성에 따른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에서 편리한 가전제품이 등장하고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유연하게 일을 선택할 수 있어 사회진출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즉 법과 제도, 교육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현저하게 길고, 임원 승진이 어렵다는 사실은 <다>의 논지가 이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임원 비율이 낮은 것은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육아와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우선 부담을 지움으로써 경력단절로 사회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력이 증가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의 이중부담으로부터 여성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를 비판할 수 있다.

인문계열 2회차 계열문항

출제 의도

-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처세의 갈등과 주체적 삶’이라는 주제 아래 서로 다른 상황 속에 놓인 지문을 각각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다.
- 고전적 사유가 갖는 사상적 깊이와 주제를 이해하고, 삶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따르고,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문학 텍스트(소설, 자서전)를 통해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 창의력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이용휴, 『수려기, (‘나를 찾아가는 길’)』 (돌베개, 2014년, 69~70쪽에서 발췌)

<가>에 제시된 「수려기(隨廬記)」는 18세기 연암 박지원과 쌍벽을 이룬 해환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의 글이다. 이 글은 어떤 이가 ‘따르며 살리라’는 지향을 담아 자신의 집에 ‘수려(隨廬)라는 이름을 붙이자, 그 건물의 이름에 담긴 뜻을 풀어 준 기문(記文)이다. <가>는 세상사 만물이 나름의 법칙대로 흘러가니, 가급적 일반적 추세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 추세, 시세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이치’를 따져 따를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 이치가 바로 ‘자기 마음’에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마음에 되돌어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난 후, 행하기를 강조한다. 즉 <가>의 논지는 일반적인 추세, 시세를 따르되 행하는 이의 자기마음, 즉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도록 행하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처세의 갈등을 요령 있게 전개하고 있지만 어떤 행동이나 실천을 앞둔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지 하는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합당한 ‘기준’을 핵심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조건 혹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제시문 <나> : 전광용, 『꺼삐딴 리, (‘한국소설문학대계’ 33)』 (동아출판, 1995년, 253~255쪽에서 발췌)

제시문 <나>는 1962년 발표된 전광용의 소설 『꺼삐딴 리』 가운데 일부이다. 일제 때는 친일을 하고 해방 이후의 북한에서는 소련군 장교의 환심을 사서 친소 행동을 벌이다가 이남에 내려와서는 다시 미국에 편향하는 행태를 보이는 외과의사 이인국을 통해 작가는 한국 근대사의 상처와 멍에를 재삼 확인하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국가도 양심도 문제 삼지 않는 인간 유형을 창조해냈다. <다>의 소설 속 ‘그’(이인국)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안위만을 좇는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다. ‘그’는 해방 후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과거 친일 행적이 문제될까 싶어 재빨리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일제 식민 시절, ‘그’는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일본어 상용에 적극 동참하는데, 온 집안이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 즉 당시 국어를 적극 사용하여 일제로부터 표창까지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정세가 급변하자 이번엔 소련군 치하에 적응할 방법에 골몰하면서 양심이나 소신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 않은 채 과거를 은폐하려는 심리와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다> : 간디, 『히말라야적 오산, (‘간디 자서전’)』 (한길사, 2003년, 604~605쪽에서 발췌)

<다>에 제시된 『간디 자서전-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은 간디가 1927년과 1929년에 각각 상·하로 나누어 출간한 자서전의 일부로, 이 대목에는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하던 도중에 겪은 일과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반성 등이 담겨 있다. <다>는 민중들 스스로의 인식과 실천이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 속에서 ‘나’(간디)가 깨닫게 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과 스스로의 과오를 적고 있다. ‘나’는 민중들의 불법과 폭력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민중들 스스로의 인식과 준비 정도를 간과한 채 성급하게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라고 한 것이 커다란 잘못이었음을 알게 된다. ‘나’는 이러한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일부로부터 조소를 받기도 하지만 더욱 냉철한 반성을 통해 비폭력 저항 운동이 지켜야할 원칙과 조건을 생각하기에 이른다. 비폭력 저항 운동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지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때라야 비로소 특정한 법에 대해 명확한 조건 아래서 운동이 성립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문항 해설

■ 논제의 구성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비판하고 <다>에서 말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1,000자 ±100자)

논제는 ‘처세의 갈등’과 ‘주체적 삶’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는 <가>의 논지를 이해하고, 소설 <가>와 자서전 <나>가 제시하는 구체적 상황을 이해한 다음, <가>의 논지를 적용하여 <나>의 서술화자가 보여준 태도를 비판하고, <다>의 서술화자가 도달한 인식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의 논지를 파악하시오.

둘째, <나>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분석하고 <가>에 근거하여 이를 비판하시오.

셋째, <다>에 나타난 ‘비판적 저항 운동의 조건’을 요약하고, <가>에 근거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단계의 사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의 논지 파악하기

둘째, <가>의 논지로 <나>에 나타난 ‘그’의 태도 분석하고, 비판하기

셋째, <가>의 논지로 <다>에 나타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 요약하고 설명하기

채점 기준

■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적절한가.

-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답안 구성 요소별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①<가>가 말하는 ‘따르며 산다’의 의미 이해

- <가>는 세상사 만물이 나름의 법칙대로 흘러가니, 가급적 일반적 추세를 따르라고 한다. 물론 백이숙제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개는 남들 혹은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시세를 거역하긴 어려우니 따르며 살라는 것이다. 심지어 우(禹)임금이나 공자 같은 성현들도 동시대의 풍속, 관례를 따른 것이야말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가>는 일반적 추세나 시세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이치’를 따져 비로소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치가 바로 ‘자기 마음’에 있으니 반드시 자기마음에 되물어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난 후, 행하기를 강조한다.

- 즉 <가>의 논지는 일반적인 추세나 시세를 따르되 행하는 이의 자기마음, 즉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도록 행하라는 것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니 망설임 없이 행하고,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생긴다면 이치에 어긋난 것이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가>는 표면적으로는 처세의 갈등을 요령 있게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나 실천을 앞둔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지 하는 따름의 ‘대상’보다는 그러한 따름의 합당한 ‘기준’을 핵심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조건 혹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②<가>의 근거로 <나>에 나타난 ‘그’의 갈등 상황 및 태도를 분석하고 비판하기

- <다>의 소설 속 ‘그’(이민국)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안위만을 좇는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해방 후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리적 갈등 상황에 봉착한다. 세상이 바꾸자 무엇이 따라 처세해야할지 고민은 깊어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똘'하는 모습이 제시문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 무엇에 따를 것인지, 바뀐 정세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는 장면은 '움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일제 식민 치하에서 국어, 즉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 사용에 적극 동참한 공로로 받았던 표창장을 해방되자마자 벽장에 숨겨놓았었는데, 그것을 꺼 내 글자 한 자도 남지 않게 꼼꼼히 찢어 버린다. 소련군을 따르는 데 자신의 과거 친일 행적이 문제될까 싶어서 재빨리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다.

- '그'(이민국)의 이러한 행동은 '아름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는 표현 등으로 볼 때, 분명 자기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다. 온 집안이 일본어 사용에 동참해서 일제로부터 표창과 치하를 받았고, 해방 된 이후에 다시 우리 국어를 쓰는 것이 어색 할 정도였던 그는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국가도 양심도 소신도 저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의 논지로 볼 때, '그'(이민국)의 이러한 태도는 이치에 맞는 따름(처세)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나>에 묘사된 그의 심리는 마음의 거리낌이 적지 않다. 이러한 거리낌은 양심에 비추어 나오는 것일 텐데, 그는 양심의 가책이나 자기마음의 머뭇거림 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태도나 행동은 합당한 기준에 부합하는 따름이 아니고,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③<가>에 근거하여 <다>에서 말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 요약하고 의미 설명하기

- <다>는 비폭력 저항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태를 마주하면서 '나'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가져온 시행착오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있다. 일련의 폭력사태는 '나'로 하여금 큰 잘못을 깨닫게 하는데, 오산의 핵심은 민중들의 준비 정도가 미흡한데도 성급하게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게 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과 이에 기반을 둔 대중 운동의 대의를 성찰하기에 이른다.

- <다>에서 말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은 구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충실히 양심적으로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즉 비 폭력 저항 운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자유 의지로 행하는 실천이라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특정 법의 옳고 그름을 능히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런 다음에야 특정 법에 대한 명확한 조건 아래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 <가>의 관점에 근거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은 구성원들이 국가의 법(시세)에 따르면서도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즉 자 발적이고, 자유 의지로 행해야 하며, 그럴 때라야 이치에 맞는 따름으로서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비폭력 저항 운동의 구성원들은 마음의 꺼림이 있는 상태, 즉 자발적 순종과 자유 의지에 의하지 않고 시세를 따르지 않으면서 폭력 사 태를 초래했다. '나'(간디)는 이를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항 운동을 유보하는 냉정한 결정에 이르는 것이다.

예시 답안

<가>의 논지는 '시세를 따르되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치에 맞으면서도 시세를 거스르지 않는 삶 이라고 본다. 서술화자는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곧 행하는 이의 자기마음, 즉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보아 거리낌이 없는 때, 세상의 추이에 따라 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처세의 갈등을 요령 있게 전개하고 있지만 궁극적 으로는 무엇을 따를지 하는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합당한 '기준'을 핵심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나>의 소설 속 '그'(이민국)는 시세에 적극적으로 따른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는 식민과 해방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친일 행각 같은 뉘그러치 못하고 양심에 거리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변하자 자신의 안위만을 좇아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 을 수 있다.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치에 맞는 따름(처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는 저항 운동의 복판에서 민중들의 준비 정도와 정세에 따른 '나'의 오산과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을 서술하고 있다. <가>의 관 점에 근거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은 구성원들이 국가의 법(시세)에 따르면서도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즉 자발적이 고, 자유 의지로 행해야 하며, 그럴 때라야 이치에 맞는 따름으로서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비 폭력 저항 운동의 구성원들은 마음의 꺼림이 있는 상태, 즉 자발적 순종과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법(시세)을 따르지 않으면서 급기야 폭력 사태를 초래했다. '나'(간디)는 이를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유보하 는 냉정한 결정에 이르는 것이다.